

협회소식 / 업계동정

「유가공 용어집」 발간배포

한국 유가공협회(회장 金榮鎭)는 최근 유가공관련 용어를 표준화한 「유가공 용어집」을 발간, 배포했다.

그동안 생산현장은 물론 학계에서 조차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채 쓰여온 유가공용어를 체계적으로 통일시킨 이 용어집은 찾아보기 쉽게 영문-국문, 국문-영문으로 구분해 사전식으로 편집돼 있다.

여름철 유제품 변질사고 예방 소비자보호 위생관리 세미나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유업체 임직원, 대리점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와 소비자보호'란 주제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하절기를 앞두고 우유 및 유제품의 변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진수 보사부 식품관리과장 ('94 위생관리시책 및 감시방향) △임상동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 △박영숙 서울YWCA부장(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와 소비자보호)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매일, 비피더스 요구르트 출시

매일유업·주(대표 朴燾柱)는 최근 비피더스, 에시도필러스 유산균이 한병에 2천억이 함유된 새로운 드링크요구르트인 '비피



더스 요구르트'를 최신 설비와 비피더스유산균에 대한 연구기술로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일반 드링크요구르

트의 성분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장을 활성화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배변을 도와주는 비피더스유산균이 들어있는게 특징.

또한 천연의 밀크 미네랄을 강화하고 칼슘함량을 한병당 2백 54㎎이상이므로 높여 칼슘의 흡수를 향상시켰으며 무설탕, 저지방, 저칼로리에 식이섬유까지 함유돼 비만예방,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음료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플레인, 딸기 두종류인 비피더스요구르트의 소비자가격은 2백 ㎖ 병당 6백원.

빙그레, 고급우유 '생큐 엘투'시판 고칼로리 우유 '생큐 43'도 개발

주·빙그레(대표 申鍾薰)는 최근 고급우유 '생큐 엘투'와 '생큐 4.3' 두종류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빙그레는 생큐.엘투는 월출산에 있는 영암목장에서 자연상태로 방목돼 자라는 젖소의 신선



한 생유만을 사용했으며, 생규 4.3은 국내우유중 가장 높은 유지방 4.3%를 함유한 고칼로리 우유로서 신선한 생유크림을 듬뿍넣어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는 성장기 어린이와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우유라고 밝혔다.

소비자가격은 2백45ml 4백 70원, 4백90ml 8백80원, 9백 80ml 1천5백60원이다.

「한국야쿠르트 25年史」 발간

한국야쿠르트유업·주(대표 李銀鮮)는 최근 창립 25주년을 맞아 社史 「한국야쿠르트 25년사」를 발간했다.

기존의 사사가 창업주나 회사 발간과정을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우리나라 유산균발효유 시장변화등의 발효유산업의 변천쪽에 편집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사사발간과 관련 지난 6월 24일 오후 대한상의클럽에서 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건강음료 '바이오 레디' 출시 해태유업, 고급우유 '엘리트'도

해태유업·주(대표 閔丙憲)는 최근 열대과일인 망고의 과즙과 유청(乳清)을 함유한 건강음료 신제품 '바이오 레디'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해태유업은 유청속에는 우유 미네랄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건강음료로서의 효능을 높여주고 있으면서 지방과 콜레스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牛乳”誌는 유가공관련 종사에게는 情報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가공 종합정보지입니다.

牛乳誌는 열린 잡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의 내용이나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牛乳편집실

테롤이 없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1천ml들이와 2백, 2백 50ml들



이 세종류가 있으며 소용량제품은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멸균팩을 사용했다. 소비자가격은 1천ml들이가 1천원, 2백, 2백50ml

는 각각 3백원과 3백50원.

해태유업은 또 엄선된 1등급 원유로 만든 고급우유인 엘리트 우유도 개발, 시판하고 있다.

소비자권장가격은 2백35g 4백 70원, 9백50g 1천5백60원이다.

야쿠르트, 건강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야쿠르트유업(주)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 12층에서 제1회 건강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琉球大 마쓰사키(松崎俊久)교수가 장수촌과 단수촌의 비교로, 서울대 蔡範錫 교수가 '한국인의 수명과 식생활'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어린이 치즈 '양광 새친구' 발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趙光鉉)은 최근 어린이용 치즈인 '양광'에 영양을 보강시키고 순도를 높인 '양광 새친구'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신제품에는 성장기 어린이에 필요한 칼슘을 비롯, 비타민 D, 인, 베타카로틴은 물론 성장기 두뇌발달에 좋은 DHA를 첨가하고 자연치즈함량도 80%로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서울우유는 말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90g 짜리는 1천2백원, 1백80g 짜리는 2천3백50원이다.

삼양식품, 수프에 치즈넣은 피자맛 '치스컵'라면 개발

삼양식품(대표 安麟洙)은 최근 수프에 치즈를 넣어 전체적으로 피자맛이 나는 용기라면 신제품 '치스컵'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삼양식품은 라면에 치즈를 넣어 먹는 청소년들이 많다는데 착안해 이 제품을 개발했으며 신세대의 간식취향과 입맛에 맞도록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을 줄이는 대신 고소한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희망소비자가 가격은 65g 1통에 5백원이다.

어린이 우유 '양광' 개발 시판
서울우유, 성장기 영양소 보강

서울우유는 성장기 어린이 발육에 필요한 각종 필수 영양소

를 보강한 '어린이우유 양광'을 개발, 최근 시판에 들어갔다.

어린이 전용 우유가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우유는 1~7세의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칼슘, 철분, 비타민 A.B1.D등이 기존 우유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 이번 신상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시중 고급우유와 일반우유의 중간으로 2백ml짜리 권장소비자가 가격은 3백40원, 1천ml는 1천2백50원이다.

두산 '다농 델리시아' 시판

두산종합식품(대표 李永吉)은 최근 떠먹는 요구르트인 다농의 자매품인 '다농 델리시아'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두산종합식품은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원유의 함량이 높아 신선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고 특히 가격이 기존 다농(개당 3백50원-4백원)에 비해 저렴한 2백50원선이라고 덧붙였다.

딸기맛과 멜론맛으로 나눠 개발된 신제품은 우선 딸기맛이

이번에 선보였고 멜론맛은 곧 출시할 예정이다.

DHA 함유 原乳 세계 첫 생산
남양유업서 상품화 시판 계획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해 조제분유와 이유식, 치즈 등에 사용해 왔던 DHA(도코사헥사엔酸)가 특수 사료를 먹인 젖소의 우유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대 呂泳根 교수는 6월 22일 오후 1시 한국지질(脂質)학회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주최한 'n-3 지방산의 영양과 건강 효과'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특수 공법으로 제조한 사료를 젖소에 약 3개월 먹인 결과 체내의 대사 작용을 통해 순도 높은 DHA가 함유된 원유를 짜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呂교수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이 DHA 우유가 젖소의 신진대사를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순도 높은 DHA를 함유함으로써 DHA의 가장 이상적인 효능이 기대되며 함량 역시 모유속에 있는 수준(0.2%)과 거의 비슷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DHA는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해 이를 조제분유나 이유식, 참치, 치즈 등에 넣어 사용해 왔었다.

DHA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혈전을 방지해 혈액을 맑게 해줘 노화방지과 암예방, 고혈압 방지 등은 물론 뇌성분의 일종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묘교수가 이번에 개발한 사료는 (주)우방 식품사업부에 생산토록 하고 남양유업이 젖소에서 짠 원유로 DHA함유 우유를 만들어 곧 시판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묘교수 외에 세계식량농업기구(FAO)상임위

원인 윌리엄 D. 클레이 박사가 'FAO의 지질영양정책'에 대해, 日本 東北大 후지모토 겐시로 교수가 'DHA와 뇌기능 효과', 형가리과학원 티보 파카스 교수가 'DHA 함유 자연식품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백1만8천마리로 작년 12월보다 1백7만3천마리(1.5%)가 늘었으며 1년전에 비해서는 3백53만1천마리(4.6%)가 줄었으나 사육농가는 17만7천가구로 1년전보다 1만가구 증가했다.

종합소식

가축 專業化 추세 계속 늘어 젖소사육 가구당 19.8마리

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늘고 있으나 사육농가는 줄어들어 가구당 사육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부가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천5백62개 가축사육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축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사육두수가 한육우의 경우 1년전의 3.4마리에서 4.0마리, 돼지는 59.3마리에서 89.5마리, 젖소는 18.5마리에서 19.8마리, 산란계는 1만2천마리에서 1만3천1백마리로 각각 늘어났다.

한육우(한우 및 육우)는 3월 1일 현재 2백23만6천마리로 작년 12월보다는 2만4천마리(1.1%)가 줄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2만9천마리(11.4%)가 늘었다.

그러나 사육농가는 56만3천가구로 작년 12월에 비해 7천가구, 1년전보다 2만2천가구가 각각 감소했다.

돼지의 사육두수는 5백72만8

천마리로 작년 12월에 비해 20만마리(3.4%)가 줄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6만마리(10.8%)가 늘었다.

사육농가는 6만4천가구로 작년 12월에 비해 6천가구, 1년전보다 2만3천가구가 각각 감소했다.

젖소의 사육두수는 55만3천마리로 작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년전보다는 3만8천마리(7.4%)가 늘었으며 사육농가는 2만8천가구로 작년 12월이나 3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밖에 닭의 사육두수는 7천4

파스퇴르 광고취소조치 "적법" 서울고법, 의약품 오인 우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金 午燮 부장판사)는 5월 13일 (주)파스퇴르 유업이 "본사의 사과요구르트 제품광고가 의약품선전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를 취소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낸 식품제조정지 및 광고금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광고 취소조치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사과요구르트를 하루에 세병씩

신간화제..... '대리점 경영소프트'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외국 의 상품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는 많은 상품이 성숙하여 기업간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조직으로서의 대리점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리점 경영의 지침서인 「대리점 경영소프트」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대리점경영의 기초에서부터 판매전략, 재무전략, 조

직관리, 고객관리등 대리점경영의 노하우와 실제 경영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 쉽게 기술하고 있다.

유제품시장도 95년부터 완전개방돼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우유대리점 경영자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김경욱 저, 값 5천5백원.

마시면 4-5일만에 변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선전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광고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과요구르트가 위해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조정지조치에 대한 선 재량권남용으로 판단돼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92년 10월 일간지에 게재한 사과요구르트 제품에 대한 광고를 통해 질병에 매우 효능이 뛰어난 것처럼 과대선전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제조정지 및 광고취소조치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산치즈 품질·안전성 양호 소보원 가공치즈 검사 결과

시판중인 가공치즈는 대부분 품질, 안전성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일부 실량이 부족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仁浩)은 최근 시판중인 軟性 가공치즈 6개업체 8개 제품(슬라이스 치즈:5개, 피자토스트 치즈:3개)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시험한 결과 순제품이 품질 및 안전성에서 대체로 우수했다고 밝혔다.

조개 껍데기 칼슘특수용매 이용 무해한 젖소유방염치료제 개발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는

최근 소의 생체에 전혀 해가 없고 항생물질이 우유에 잔류되지 않는 젖소 유방염 치료 및 예방제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조개껍데기를 이온화 칼슘 특수용매를 이용, 섭씨 1천5백도의 고온으로 처리한 고효능의 항염증성 주사제로 젖소에서 가장 많은 질병인 유방염의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 칼슘주사제를 악성 유방염에 걸린 4개 목장의 젖소 41마리의 정맥내에 주사한 결과 유방염으로 발생하는 체세포수가 주사 이틀후 41%, 3일후 36%로 각각 감소했으며 등의품 우유의 96.8%가 3등급 이내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방염에 걸린 젖소의 치료에는 고단위 항생물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유내에 항생물질이 잔류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유가공 측면에서도 잔류한 항생물질은 발효균을 죽여 치즈생산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주사제를 이용하게 되면 1등급 원유 생산능가가 적어도 25-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농가당 평균 5백40만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젖소 산유축진 단백질 개발 렉키, 생산량 25% 증대 가능

젖소의 산유량을 25%정도 늘릴수 있는 산유축진 단백질이 유전자재조합방식으로 국내에서

개발됐다.

최근 (주)력키는 젖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BST(Bovine Somatotropin)를 유전자재조합 생명공학 기술로 발효, 정제하여 천연BST와 생물학적 활성이 동일한 물질을 대량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지난 85년부터 개발에 착수, 약 1백억원을 투입한 재조합산유 축진단백질은 젖소에 투여할 경우 산유량을 10~45%까지 늘릴수 있어 국내 낙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및 서울대수의과학연구소 강원대동물자원연구소등에서 시행된 임상시험단계를 완료하는데로 상품화할 계획이다.

산유축진단백질은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아메리칸 사이나미드社 등 3, 4개 회사만이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 2월 美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어 미국내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한편 이 단백질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관련 지난 5월24일 축협중앙회강당에서 열린 산유축진단백질세미나에서 강원대 洪炳周교수는 「젖소의 관리상태 따라 10%에서 45%까지 산유량이 늘어 젖소 1마리당 연간 최고 60만원의 비용절감 및 수익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또 韓洪栗·李榮純 서울대교수는 이 단백질이 젖소의 건강과 생산된 우유를 섭취한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국내실험결과 및 외국의 실험결과에 대해 보고했다.